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 혀의 능력 (약 3:1-12)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 곧 우리의 혀에 관한 것을 지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곳에는 여지없이 혀, 즉 말의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계가 창조되었고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함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에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공유하는 몇 가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각 분야의 창조성, 종교성, 웃음, 음악, 예술, 과학 등은 다른 동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런 독특성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 입술의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뱉은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 3:1).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약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원치 않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혀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약 3:3). 말과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이고 난 후에 “난 단지 몇 마디 했을 뿐인데”라고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몇 마디가 한 인생을 피멍이 들게 하고 다 태워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하고, 치유와 회복을 창조하고, 완전한 조화를 창조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언어는 어둠을 끌어들이고,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며, 상처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며, 결국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불로 혀와 말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와 축복의 말, 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 십자가의 사랑의 말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심비에 새기시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 The Power of the Tongue (James 3:1-1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ames the Apostle points out another important part, the tongue that we cannot avoid in our life of faith. Whenever we have a trouble in our life of faith, there must be undoubtedly, the tongue, in other words, a slip of the tongue.

There is an amazing ability in the language that we use. God created the universe with His word. When God said, the universe was created and it started to exist. When God created human beings as a very special existence, the Bible explains that its specificity refers to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is word means that men are limited but there are several things sharing the power with God. Historical consciousness, creativity in every field, religiosity, laughing, music, arts, and science, etc. that we never find out in the animals are

the very particular power of which only men resemble the image of God. In such a particularity, there is the language of human beings that is word coming out of lips.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Prov 18:21).

Our life and death depend on the power of our tongue. James the Apostle encourages us in the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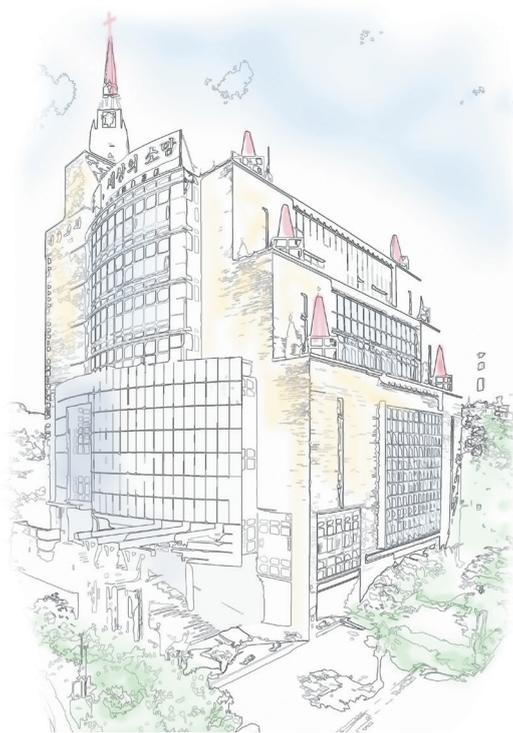
“Not many of you presume to be teachers, my brothers, because you know that we who teach will be judges more strictly” (James 3:1).

James says not to be a teacher. Because to become a teacher means that he/she has to speak too much. Furthermore, if he is not put a bridle on the tongue, he suffers a catastrophe, and if he does not control his tongue, his life will proceed to the direction that he does not want.

The tongue is non-stop evil, and is full of poisons to kill (James 3:3).

Our speech and life cannot be separated. And there, because in our speech, there is enormous power, it can kill or save people. We know well through our experience how large a short careless word raises emotions. After we hurt people with a word and kill their spirit, we cannot make excuses with the word “I only say a few words”. A few words can bruise or burn a person.

My beloved Christians,  
God’s word created the light, love, healing, recovery, and complete harmony. However, the language of the devil, the enemy brings darkness, promotes the split of mind, makes man experience despair, and removes joy in the end.  
Our tongue and speech have to change into a spiritual fire. By the word of God the Father, encourage, heal and recover a spiritual soul, receive the emotion of spirit, and love the cross, we can turn the place where we live into the Kingdom of God.  
By carving this truth in the min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God’s people without a slip of the tongu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6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7월 21일(목) : 에바다부 / 7월 22일(금) : 교육 1국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2(금) - 23(토)	서울교회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이 쏘~ 알콩달콩 사이좋게!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믿음에 굳게 서요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7/28(목) - 30(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그루터기 (사 6:13)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7/28(목) - 30(토)		내일을 향한 지혜 (잠 16:9)	박노철 목사 천세종 목사
청년1·2부	8/4(목) - 6(토)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II (빌 25)	박노철 목사 박병만 목사 (높은뜻정의교회 청년부총괄) 서준권 목사 장재원 목사 정대은 목사
에바다부	7/21(목) - 23(토)		아가페타운	그리스도와 연합 (시 133:1)
영어에배부	8/26(금) - 27(토)	아가페타운	Living a Genuine Christian Life	박노철 목사 김삼열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김다니엘 목사



## 다락방리더 훈련 종강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7월 13일(수) 종강한다.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 모임도 방학한다. 개강은 8월 31일(수)이며, 이에 앞서 8월 26일(금) 리더수련회로 모인다

## 2016 하계 국내 전도 오늘 출발

2016 하계 국내 전도단(지도 서명철 목사, 단장 최광성 장로)이 오늘부터 7월 14일(목)까지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김준기 담임목사)와 인근 마을에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펼친다. 의료선교팀은 오늘 하루 대진중앙교회에서 진료 및 치료를 하고 돌아오며 전도대 및 봉사팀은 내일 출발한다.

## 2016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7월 13일(수) / 수여식: 8월 7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6년 하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주추천서 혹은 교회학 교주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를 7월 13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재정상태확인서(건강보험 납입증명서와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교역자 하계 휴가

서명철목사 : 8.1 ~ 6	대행 : 장석남목사
장석남목사 : 7.25 ~ 30	대행 : 조원영목사
유문건목사 : 7.11 ~ 16	대행 : 박영준목사
박영준목사 : 8.8 ~ 13	대행 : 유문건목사
조원영목사 : 8.19,20, 22~ 25	대행 : 서명철목사
서준권목사 : 8.22 ~ 27	대행 : 장재원목사
양세라목사 : 8.1 ~ 6	대행 : 배경애전도사
임규현목사 : 8.8 ~ 13	대행 : 서명철목사
배경애전도사 : 8.22 ~ 27	대행 : 양세라목사

## 이종윤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 아시아 선교전망과 한국교회의 신학적 사명II

(요 20:21)

#### 1. 문제점들

아시아에 있는 1000개 가까이 되는 신학교 중에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학자와 신학생과 목사가 얼마나 되겠는지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세계 신학학회(SNTS)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신학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마지막 일새이다. 서양의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떠난지 오래 되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남겨두셨다. 오늘 한국교회의 소문이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열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다고 전세계 교회에 소문이 나왔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예루살렘이 되고 있어서 한국교회에 와야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한국교회에 와야

야 복음의 핵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사명과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한국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 저들의 흔들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급선무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잘 훈련된 지도자 개발문제, 평신도 훈련문제, 오늘의 상황 즉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불의와 부정부, 공산주의 아시아 신학의 문제, 윤리적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 교회들에게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 2. 아시아 선교의 장애물들

아시아 선교의 장애물은 종교적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종교를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격하시켰다. 종교를 종교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물질주의, 합리주의, 무관심주의가 선교의 장애물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시아 선교를 할 때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복음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시아를 구원할 길은 복음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가난, 고통, 핍박에 대한 집념

은 강하지만 복음에 대한 신념은 희박하다.

#### 3. 아시아 선교전망

아시아 선교는 봉사선교(Service mission)와 교회개척(Church planting)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한다. 봉사선교는 병원, 학교, 구제사업을 통한 간접선교이나 교회개척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직접선교이다. 우리는 한 교회나 단체가 선교사를 독립적으로 보내는 일을 삼가 하고 될 수 있으면 협력 선교를 해야 한다. 제3의 단체와 협력 해서 늘 협의 하면서 어떤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 선교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복음의 문은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긴급히 세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점점 그리스도 없는 선교, 성령을 믿지 않는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선교운동이 함께 일어날 조망이 있고 인간화와 해방화에 초점이 맞춰진 선교운동 또한 도처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다. 매년 일백만명 이상의 새신자가 아시아에서 생겨지고 계속해서 신자수가 증가되므로 선교사 수는 앞으로 더 많이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아시아 선교에 신학적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

(다음 주 계속)



# 북핵의 피해자도 대한민국, 대응해야 할 주체도 대한민국

## 북핵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이종운 목사외 28명) 미국·UN방문

북한은 지난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로 지난 1991년 남북한의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사문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인정여하와 관계없이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칭하게 되었다.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은 이후로도 수시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과 위협을 자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비상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후 지난 2월 29일 출범한 북핵폐기천만인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4개월동안 250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같이 많은 국민이 호응한 것은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증거라고 판단한다.

2016년 1월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수차례 도발을 반복함으로써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태로 가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되어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북한동포돕기라는 미명하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야하고 요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해올 것이다. 통일 희망은 사라지고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고 북한동포들은 계속 참혹한 인권유린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북핵을 폐기시키고 통일한국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북핵을 용인하고 인질의

삶을 살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북핵에 절대로 굴종할 수 없으며 어떤 댓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일부에서는 서명이 북핵폐기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냉소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서명운동이 천만명을 넘어 온 국민이 한 목소리로 북핵폐기를 외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북핵폐기

세력과 북핵용인 세력으로 양분되어 나라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북핵폐기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핵폐기, 자유통일, 선진국 그 어느 것도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2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가운데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7월11일부터 15일까지 이종운목사(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를 포함한 29명의 미국방문단을 조직하여 미국국회와 행정부, 유엔본부, 미주 교민사회와 만나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국민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안보협력 체제를 위한 민간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며 나아가 워싱턴과 뉴욕의 교민사회에서도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미국정부 대표를 만나서는 북핵폐기를 위한 한미양국의 동맹강화, 미국과 유엔에 북핵폐기 서명운동 설명, 전술핵재배치 설득, 미국교민사회에 북핵폐기에 관한 한국국민의 확고한 입장전달, 평화협정 논의반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워싱턴D.C와 뉴욕에서도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거행한다.



이미지 출처 : sbs뉴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8315](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8315))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핵우산의 북핵 억지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9%가 북핵을 고집하면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도 미국은 핵우산 약속을 조약화 하여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 관리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배치를 끝낸 후 평화협정 공세를 펼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적화통일의 위험만 높이므로 미국은 절대로 북의 평화협정 공세에 응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한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북한 핵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북한의 온갖 위협에 굴복하면서 굴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은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를 철저히 반성하고 북핵폐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력하도록, 그리고 탈북난민 복송을 중단시키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편집부)

“  
무슨 댓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  
북핵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없이 안이하게  
국제사회의 조치만  
따라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

”

## 홍해작전 4행시·5행시 대상작



정은채 (유년부)

홍 - 홍해작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해 - 해가 뜬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가 눈부시게 뜬다.  
작 - 작고 작은 키와 작은 두손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 -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자



현예성 집사 (16교구)

진 - 진실된 믿음과  
정 - 정결한 마음으로  
한 - 한량없는 은혜 속에  
부 - 부흥하리 서울교회!  
홍 - 흥분됩니다 생각만해도~~~



# 발달장애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6개월동안 호산나대학을 위해 기도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호산나대학의 활동을 지면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와 교육에 힘쓰는 호산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목) 본교 제11대 총학생회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호산나대학 제1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2학년 사무자동학과 이도은(회장), 노인케어학과 강태우(부회장) 학생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여섯 후보가 출마하는 등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각 선거캠프에서는 '북카페 운영', '스키캠프 운영', '기숙사 규제 완화', '자율 배식' 등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서포터즈들과 함께 개성 있는 모습으로 한 달간 유세활동을 펼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날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투표 및 개표과정은 생중계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치열한 경합 끝에 30.6%의 득표율을 기록한 기호 2번 이도은, 강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도은, 강태우 학생은 '연극을 통한 성교육 실시', '학교행사 전문 음향업체', '야간 도서관 개방', '탁구대 설치', '학생전용휴게실' '겨울방학 스키캠프' '기숙사 휴대폰반납시간 및 TV시청 시간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워 제12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본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전달하였다.

신임회장이 된 이도은 학생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도와준 우리 기호 2번 서포터즈들에게 정말 고맙다. 앞으로 호산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제12대 총학생회는 9월 5일(월) 이취임식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호산나대학 취업자 캠프 개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호산나대학에서 취업자 회원제에 가입한 취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취업생 약 30여명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일MEC, 서울시립서부요양센터, 순천향대학병원, 서울은빛요양병원, 영신초등학교, 스타벅스 등에서 근무) 하루 휴가를 내고 대전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학교를 방문하였다.

선·후배 만남의 시간을 시작으로 출신 학과별 선배들이 재학중인 후배들에게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했고 후배들은 평소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선배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선·후배 멘토링이 진행되었다.

또한, 취업자 보수교육에서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강의와 현재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인간관계에 대한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산나대학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위해 취업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취업자모임, 캠프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취업자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적

인 사회인은 물론 직장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호산나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상반기 회계 감사 실시

2016년 상반기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찬양대, 교회학교 등 각 해당부서 회계 담당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월11일부터 7월16일까지 북핵 폐기 미국.유엔방문단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여한다.
- 발령 : 13교구 서은석집사 일산소방서장에서 양주소방서장으로 이동 발령
- 주일식당봉사 : 마리아 전도회(7.10) 비비 전도회(7.17)
- 금주의 식사 제공 : 박경정 집사 이인보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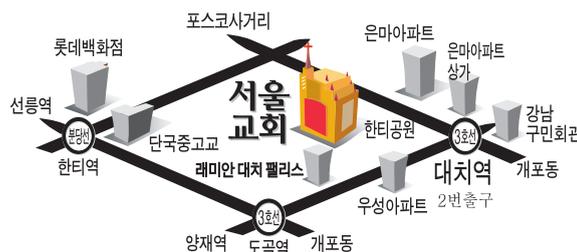
1. 2016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2. 7월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2016년 전도위원회 하계 국내전도가 강원도 고성군 대진중앙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 방학에 들어가는 다락방 모임이 참된 안식과 함께 영적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도록

## 장년1부 2학기 개강 7/17(주일) "구약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 (강의: 김철홍 목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